

2021년 2월 10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제한된 변화 요인 속 개별 종목 장세

은행, 항공, 레저 하락 Vs. 일부 기술주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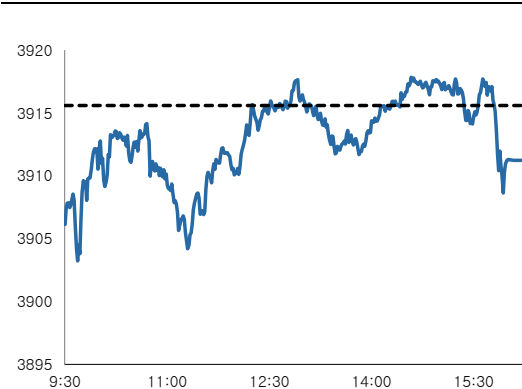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개별 종목 이슈, 국채금리

미 증시는 추가 부양책을 비롯한 여러 상승과 하락 요인의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개별 종목장세가 펼쳐지며 혼조 마감. 시장 참여자들은 의회의 추가 부양책 통과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자 전일 상승을 주도했던 경기 민감주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음. 반면, 전일 부진했던 일부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 전반적으로 낙폭을 축소하며 혼조세로 마감(다우 -0.03%, 나스닥 +0.14%, S&P500 -0.11%, 러셀 2000 +0.40%)

미 증시는 시장의 변화 요인이 제한된 가운데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 등락. 전일 비트코인 매수를 발표한 테슬라(-1.62%)의 경우는 테슬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해왔던 일부 헤지 펀드가 비트코인 매수에 대해 더 위험한 자본 배분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매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하락. 대체로 변동성이 큰 상품에 대한 투자 결정이 향후 테슬라 수익의 변동성 확대를 야기 시킬 수 있어 불확실하다고 언급. 전일 일부 헤지펀드들 또한 이번 결정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논란이 확산. 이 영향으로 테슬라가 낙폭을 확대하며 전일과 다른 양상. 이런 가운데 은행과 에너지, 항공, 레저 등 최근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들은 추가 부양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며 지수 상승을 제한

한편, 국채금리 또한 보험권 등락에 그침. 3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인 2.41 배를 소폭 하회한 2.39 배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소폭 감소한 점은 금리 상승 요인이거나, 추가 부양책 시기 및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국채 금리가 하락 전환하는 등 보험권 등락. 특히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경제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가 추가 부양책 규모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도 하락 요인. 대체로 금리는 국채 수요 둔화라는 상승 요인보다 부양책 규모 및 시기 지연이라는 하락 요인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임. 이 결과 은행을 비롯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 출회. 반면, 일부 기술주의 경우 반등에 성공하는 차별화 진행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3,084.67	-0.21	홍콩항셍	29,476.19	+0.53
KOSDAQ	957.85	-0.30	영국	6,531.56	+0.12
DOW	31,375.83	-0.03	독일	14,011.80	-0.34
NASDAQ	14,007.70	+0.14	프랑스	5,691.54	+0.10
S&P 500	3,911.23	-0.11	스페인	8,101.00	-1.44
상하이종합	3,603.49	+2.01	그리스	756.88	-2.72
일본	29,505.93	+0.40	이탈리아	23,300.49	-0.5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비트코인 관련 종목 상승 Vs. 경기 민감주, 금융주 부진

테슬라(-1.62%)는 비트코인 매수에 대해 일부 대형 헤지펀드 주주들이 반발하며 매도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낙폭을 키웠다. 비트코인은 4만 6천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이어가자 채굴 업체인 올트 글로벌(+4.43%)은 물론 라이엇 블록체인(+21.56%)은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페이팔(+0.72%) 등 결제회사들도 강세를 이어가는 등 관련 테마의 상승세는 이어졌다. 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회사인 롱핀(+120.93%)은 두배 이상 급등 했다. MS(+0.54%), 페이스북(+1.08%), 넷플릭스(+2.03%)은 물론 어도비(+0.46%), 오라클(+0.89%) 등 여타 기술주는 최근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속 부진함을 뒤로 하고 상승세를 견인했다.

기초소재 및 화학업체인 듀폰(-3.02%)은 반도체 및 스마트폰의 인쇄 회로 기판 생산과 칩 제조 및 패키징에 사용되는 특수 재료를 생산하는 부분은 8% 성장했으나, 건설부문 등의 매출이 감소로 전제적인 수준은 소폭 감소하자 하락했다. JP모건(-0.40%), BOA(-0.42%) 등 금융주와 디즈니(-0.94%), 카니발(-2.59%) 등 레저, 델타항공(-1.69%) 등 항공업종은 최근 상승을 뒤로하고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장 마감 후 시스코 시스템즈(-0.90%)는 실적 발표 후 3% 넘게 하락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동락률	ETF 종류	동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73%	대형 가치주 ETF(IVE)	-0.06%
에너지섹터 ETF(OIH)	-1.86%	중형 가치주 ETF(IWS)	+0.09%
소매업체 ETF(XRT)	-0.54%	소형 가치주 ETF(IWN)	+0.22%
금융섹터 ETF(XLF)	+0.03%	대형 성장주 ETF(VUG)	-0.03%
기술섹터 ETF(XLK)	-0.12%	중형 성장주 ETF(IWP)	+0.50%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16%	소형 성장주 ETF(IWO)	+0.66%
인터넷업체 ETF(FDN)	+0.43%	배당주 ETF(DVY)	+0.34%
리츠업체 ETF(XLRE)	+0.45%	신흥국 고배당 ETF(DEM)	-0.23%
주택건설업체 ETF(XHB)	-0.88%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77%
바이오섹터 ETF(IBB)	-0.54%	미국 국채 ETF(IEF)	+0.08%
헬스케어 ETF(XLV)	+0.15%	하이일드 ETF(JNK)	-0.20%
곡물 ETF(DBA)	0.00%	물가연동채 ETF(TIP)	+0.05%
반도체 ETF(SMH)	-0.30%	Long/short ETF(BTAL)	+0.11%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29.41	-1.52%	+9.13%	+3.63%
소재	462.60	-0.69%	+1.47%	-3.95%
산업재	760.45	+0.21%	+2.83%	+0.41%
경기소비재	1,383.37	-0.57%	+0.92%	+4.25%
필수소비재	678.05	-0.13%	+2.13%	-0.78%
헬스케어	1,351.29	+0.13%	+0.18%	-1.76%
금융	519.49	+0.10%	+4.25%	+0.79%
IT	2,399.97	-0.19%	+1.87%	+5.28%
커뮤니케이션	235.82	+0.21%	+4.26%	+8.47%
유틸리티	320.96	+0.10%	+0.27%	+2.20%
부동산	237.87	+0.47%	+1.17%	+8.9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상승 출발 후 키 맞추기 장세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2%, MSCI 신흥 지수 ETF 는 1.06% 상승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11.3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6 원 하락 출발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0.5% 내외 상승 출발 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장 초반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1% 넘게 상승하기도 했다. 특히 자동차 업종도 강세를 보여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매수세를 이어가던 외국인이 대형주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자 하락 전환 했는데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보험권 등락을 보였으나, 대체로 오전의 하락을 뒤로 하고 낙폭을 축소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달러화가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인 점,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유지한 점, 러셀 2000 지수 상승세 지속등은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한다.

그렇지만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고 이는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 시장 변화폭이 확대될 수 있어 관련 수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한국 증시는 상승 출발 후 외국인 수급에 따라 변화를 보이겠지만, 유럽과 미 증시 특징처럼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가운데 상승과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의 경우 차익매물과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어 키 맞추기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고용지표 개선

12 월 미국 채용 공고는 전월(657.2 만건)이나 예상(640 만건)을 상회한 664.6 만건을 기록했다. 해고수치는 181.2 만건으로 전월(205.5 만건) 보다 감소했으며 이직률은 전월(2.2%) 보다 증가한 2.3%로 발표되었다.

1 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는 전월(95.9)나 예상(98.0)을 하회한 95.0 으로 발표되었다. 3 개월 연속 둔화 된 것인데 이는 코로나 이슈로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줬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상승 지속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 및 중국과 미국의 경제 정상화 기대가 확산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장 초반에는 차익 매물 출회되며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여전히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 및 사우디의 공급 감소 지속, EIA 가 발표한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WTI 가격 전망을 1% 상향 조정하고 내년에는 3.5% 상향 조정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달러화는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더불어 설령 추가 부양책이 통과 된다고 해도 이로 인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이 더욱 확대된다는 점이 부각된 점도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0.3% 강세를 보이는 등 신흥국 환율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추가 부양책 시기가 지연되고 규모도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부각되자 하락 했다. 그런 가운데 3 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인 2.41 배를 하회한 2.39 배를 기록하는 등 국채 수요 둔화 가능성이 부각된 점은 금리 상승 요인이었다. 이렇듯 하락과 상승 요인이 충돌하며 금리는 보험권 등락에 그쳤다.

금은 달러 약세 기반으로 소폭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도 달러 약세로 상승 했다. 옥수수는 농무부가 옥수수 수출이 5 천만 부셸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 했으나 예상을 하회했다는 점을 들어 하락 했다. 그러나 대두 등은 견고한 수출 등을 언급해 상승 하는 차별화가 진행 되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53%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8.36	+0.67	+6.57	Dollar Index	90.455	-0.53	-0.81
브렌트유	61.09	+0.88	+6.32	EUR/USD	1.2118	+0.56	+0.61
금	1,837.50	+0.18	+0.22	USD/JPY	104.57	-0.63	-0.39
은	27.402	-0.63	+3.79	GBP/USD	1.3816	+0.55	+1.08
알루미늄	2,054.00	+1.28	+4.13	USD/CHF	0.8923	-0.73	-0.56
전기동	8,147.50	+1.37	+4.76	AUD/USD	0.7736	+0.44	+1.70
아연	2,695.50	+1.68	+4.90	USD/CAD	1.2701	-0.30	-0.63
옥수수	554.25	-1.38	+2.21	USD/BRL	5.3825	+0.47	+0.43
밀	649.50	-0.95	+0.74	USD/CNH	6.419	-0.34	-0.62
대두	1,401.75	+1.01	+3.47	USD/KRW	1116.60	-0.27	-0.10
커피	125.00	-0.99	-0.44	USD/KRW NDF1M	1111.35	-0.53	-0.3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159	-1.20	+6.22	스페인	0.128	+0.30	+1.30
한국	1.820	-0.70	+5.50	포르투갈	0.061	+0.70	+0.80
일본	0.073	+0.20	+1.90	그리스	0.771	+1.10	+10.50
독일	-0.446	-0.10	+4.30	이탈리아	0.512	+0.50	-13.8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